



미국 경제위기와 회복 그리고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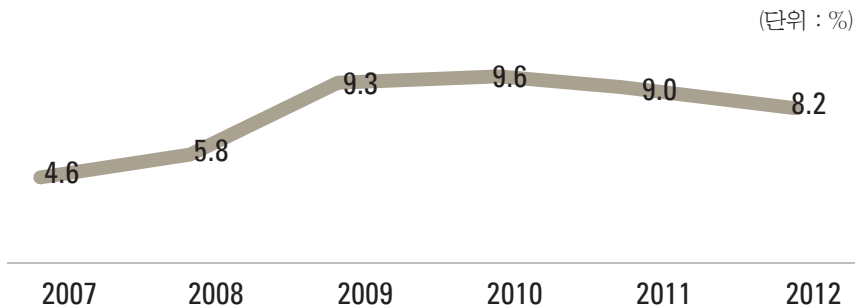
권정현 (미국 보스턴칼리지 박사과정(노동경제학))

■ 머리말

2007년 12월부터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실업률이 10%에 이르는 등 미국은 20세기 초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2009년 12월 경기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공식적인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률은 8% 이상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다가올 11월 미 대선의 주요한 쟁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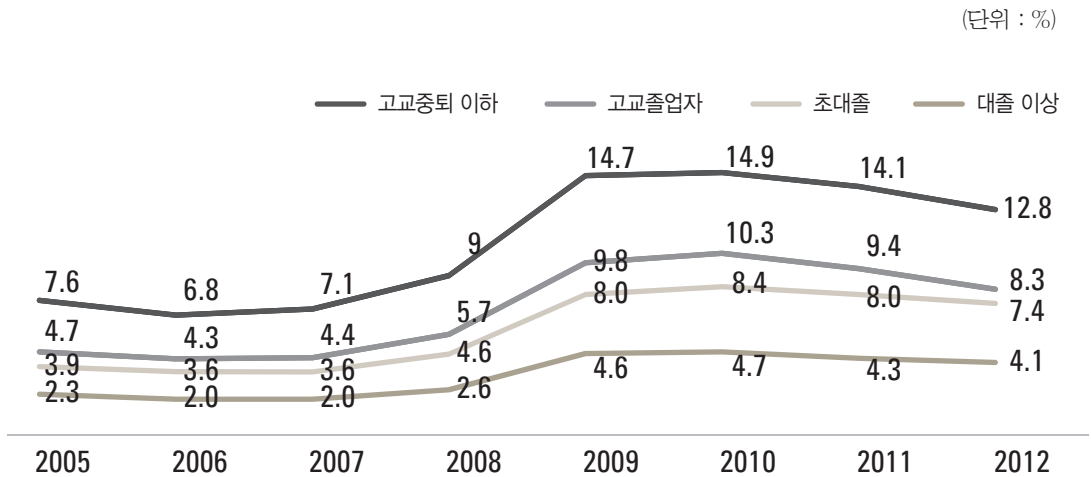
미국 전체 실업률은 2010년에 9.6%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며 현재는 8% 내외의 실업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미국 전체 실업률



자료: CPS 데이터.

[그림 2] 교육수준별 실업률



그러나 미국 경제 내 모든 노동시장 참가자가 이와 같은 심각한 실업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수준, 종사하는 산업, 그리고 성별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겪는 피해의 정도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번 경기침체는 특히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수준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고교 중퇴와 고졸인 노동시장 참가자의 실업률은 경제위기 이후 각각 14.7%와 9.8%까지 증가했다. 이후 회복기 동안에도 이들 저학력 근로자의 실업률 회복은 더딘 경과를 보이며 2012년 현재도 여전히 평균 실업률(8.2%)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수준별 경제위기에 대한 영향 차이는 고용구조와 경제 전체의 산업 변화 등을 반영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 또한 미국 경제와 비슷한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수준별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시장 참가자의 교육수준별로 경제위기로 인해 겪은 피해 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2007년 경제위기 이후의 고용 현황을 통해 살펴보고 근로자의 교육수준별

고용 상황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양적인 측면에서 대졸자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경제위기 이전의 대졸자의 취업과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상황

〈표 1〉 교육수준별 일자리 변화

(단위 : 개, %)

교육수준	일자리 수 변화			비율 변화		
	불황기	회복기	변화	불황기	회복기	변화
고졸 이하	-5,611,000	-230,000	-5,841,000	-10	0	-10
2년제대학 졸업	-1,752,000	1,592,000	-160,000	-4	4	0
대학 졸업 이상	187,000	2,012,000	2,199,000	0	4	5
전체	-7,176,000	3,374,000	-3,802,000	-5	2	-3

주: 불황기: 2007년 12월~2010년 1월, 회복기: 2010년 1월 ~ 2012년 2월.

자료: CPS, Bureau of Labor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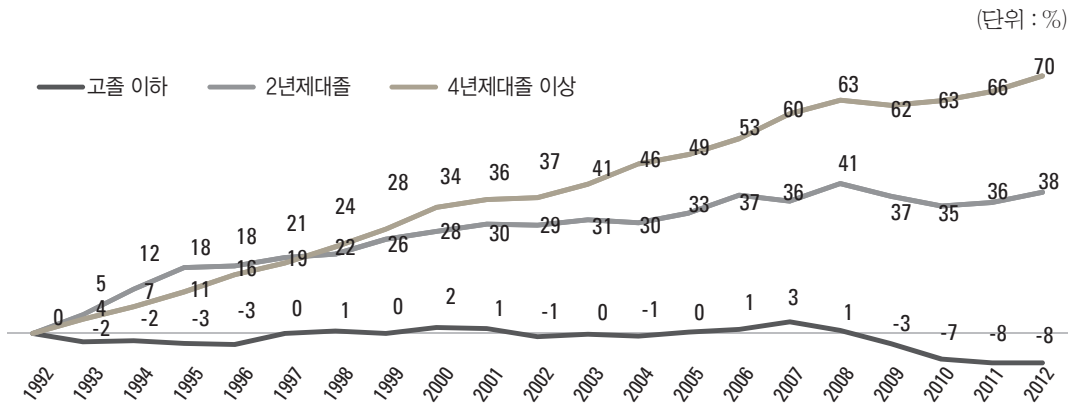
월별 미 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에 따르면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약 72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 기간 동안의 일자리 감소는 주로 고졸 이하의 저학력 노동시장 참가자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전체 일자리 감소의 80%를 차지한다.

일자리 감소가 저학력 노동자 계층에 집중된 데 반해 일자리 회복은 주로 4년제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 노동시장 참가자 층에 집중되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의 경기회복 기간 동안 약 34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고 이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200만여 개 일자리는 4년제대학 졸업 이상 노동자의 몫이었다. 반면 고졸 이하 노동자의 경우, 경기회복 기간 중에도 일자리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후 고졸 이하 노동자 층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 현상은 경제위기로 인해 그 속도가 빨라진 것일 뿐이다. 이미 1980년대 이후 고졸 이하의 노동자 수

와 일자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2년, 25세 이상 인구 중 고졸 이하의 고용 인구는 1992년에 비해 약 8%가 감소한 반면, 2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년제 대졸자와 4년제 대졸자의 고용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4년제 대졸 이상의 고용 인구는 70%가 증가했다.

[그림 3] 교육수준별 고용 성장 비교



■ 산업별 고용 변화와 고학력자 고용의 증가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 고용이 증가하고 고졸 이하 노동자의 고용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기술변화와 이에 동반된 산업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Autor, Levy and Mumane, 2003). 노동 절약적인 기술 발달과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른 제조업의 사양화 또는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동 등으로 인해 기존의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시장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은 저학력자 고용의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컴퓨터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고학력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대학 졸업 프리미엄이 상승하여 고용 기회를 잡기 위해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고졸 이하 노동자의 고용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경제위기로 인해 제조업과 건설업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 또한 경제위기 기간 동안 고졸 이하 노동자의 고용이 감소한 것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경기침체 기간 동안 전체 고용

감소 가운데 2/3가 제조업과 건설업종에서 이루어졌다. 2010년 1월까지 건설업의 경우 250만 개, 제조업의 경우 270만 개의 일자리 감소가 경제위기 기간 동안 발생했다.

2010년 1월 이후 경기회복 기간 동안 약 37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러나 일자리 회복은 가장 많은 일자리 감소가 있었던 건설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경기회복 기간 중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대표적인 산업은 의료서비스 산업과 교육과 여가 산업 등이다. 특히 이들 산업의 경우 고졸 이하의 노동자에 비해 대졸 이상의 노동자 고용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의 경기회복은 대졸 이상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저학력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업의 경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에도 그 정도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일자리 감소가 계속 이어져 2007년 12월에 비해 2012년

〈표 2〉 산업별 고용 변화

(단위 : %)

	고용 변화	교육수준별 고용 변화		
		고졸 이하	2년제대졸	대졸 이상
건설업	-21	-24	-20	-4
제조업	-17	-19	-19	-9
운수업	-11	-12	-12	-6
정보산업	-8	-17	-10	-1
금융	-8	-15	-9	-2
도소매업	-6	-8	-5	-1
비즈니스 서비스	-3	-4	-3	-2
개인서비스업	-1	-6	5	1
천연자원 관련 산업	-1	-5	4	10
여가산업	1	-4	3	9
공공서비스	2	3	-1	3
의료서비스	4	4	7	2
교육	5	-3	6	6
전체	-5	-10	-4	0

자료 : Current Population Survey, 2007년 12월 ~2012년 2월.

2월 기준 270만 개의 일자리 감소가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 주택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건설업에서 고용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저학력 노동자들의 일자리 또한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7년 12월 이후부터 2012년 초까지 공공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학력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가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일자리가 감소했던 건설업의 경우에도 대졸 이상 노동자는 고졸 이하 노동자에 비해 1/6 정도의 비율로 일자리가 감소했다. 산업 전체적으로도 고졸 이하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가 10% 감소했으나 4년제 대졸 이상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 감소를 거의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가 저학력·저숙련 노동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일자리의 질과 임금수준 차이

불황기에는 취업이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지난 심각한 경제 위기 동안에도 대학 졸업자들은 고교 졸업자 등 여타의 교육 수준을 가진 노동자에 비해 큰 어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금수준이나 승진 가능성 등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서는 이전의 호황기에 취업한 대졸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Kahn(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불황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의 경우 호황기에 취업한 대학 졸업자에 비해 덜 선호되는 직장에 취업할 확률이 더 높으며, 또한 경기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황기의 대학 졸업과 취업은 임금수준에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들은 호황기 취업자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과 관련한 단기적인 악영장은 장기적인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호황기에 취업한 다른 대졸자에 비해 덜 선호되고 임금수준이 낮은 직장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하고, 또 같은 직종에 취직하더라도 임금 인상의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결국 불황기에 취업한 대졸자의 임금은 호황기 취업자에 비해 1~18% 낮은 수

준에서 시작하며, 20년 후 전체 소득이 3~5%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인한 이와 같은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졸자들과 대졸예정자들은 취업시장 진입을 늦추게 된다. 대학원 진학이 가장 대표적인 취업시장 진입을 유예할 수 있는 방편의 예로, 실업률이 높은 해에는 대학원 진학률 또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대졸초임을 삭감한 경험이 있어 경기가 어려울 때 취업한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 당시의 정책안에 따르면 삭감된 호봉체계에 따라 임금체계가 지속되어 생애 전반의 소득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 취업함에 따라 그 손해를 계속적으로 짊어지고 가는 것은 경기침체 기간에 취업한 대졸자였던 것이다.

■ 맺음말

최근의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로 인해 저학력·저숙련 노동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반해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시장에서 어려움을 적게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은 결국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용시장에서 학력별 불균형은 대학 졸업에 대한 소득 프리미엄을 더욱 증가시켜, 비싼 대학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에서 대졸자들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경기 호황기 또는 일반적인 경기상황에서 취업한 대졸자들에 비해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결국 고용시장의 불안정성과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개선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KLI**